전북교육박물관 설립 도민의견 경청

전북교육청, 19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정책자료 활용키로

전북도교육청이 (가칭)전북교육박물관 설립 관련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전북교육박물관 설립과 관련해 학생·학부모·교직원 및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도교육청이 전북의 교육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전시·보존·연구하고자 옛 군산초등학교 자리에 전북교육박물관 설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함이다.

설문문항은 총 10개로 △박물관을 연간 몇 번이나 방문하는지 △박물관을 방문하는 동기는 무엇인지 △전북에 교육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교육발물관이 추구해야할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등이다.

설문 참여방법은 도교육청 누리집 또는 페이스북·블로그·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재된 대상별 설문링크(학생: http://naver.me/5B5EBEDR /교직원 및 도민: http://naver.me/5vBoIsA4)에 접속해 참여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동체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북교육박물관 설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쟁력을 높여줄 치과대학 3호관이 13일 개관했다. 연면적 3,782.88㎡에 지상 3층 규모인 치과대학 3호관에는 1층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에 대비할 수 있는 '치의학 임상술기센터'와 2층 기초 및 임상실험실, 3층 동물실험센터 등이 들어섰다.

김승환 교육감, 스승의 날 맞아 도내 교사에 감사와 존경 편지

"스승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도내 유·초·중·고 교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편지를 보냈다.

김 교육감은 먼저 편지를 통해 감염병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선생님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스승의 날은 마땅히 존중받고 칭찬받아야 할 이 땅의 모든 스승들을 위한 날"이라면서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마음이 척박해져도 스승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육감은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의 사랑과 가르침으로 성장하고, 지금의 우리 역시 스승들의 헌신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면서 사랑과 헌신으로 길고 외로운 교육의 한 길을 걸어오신 선생님에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9일 '2020 하나은행 FA컵' 1라운드에서 전주파랑새FC와의 경기서 승리한 전주는 '2020 K3리그' 개막전에서 연승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홈개막전, 공격축구로 기선 제압"

전주시민축구단, 내일 대전 한국철도축구단과 격돌

K3리그 개막전이 전주에서 열린다. 전북 유일의 K3축구단인 전주시민축구단(이하 전주)이 16일 오후 2시 전주종합경기장에서 대전 한국철도축구단과 홈 개막전을 갖는다.

지난 9일 '2020 하나은행 FA컵' 1라운드에서 전주파랑새FC와 경기서 승리한 전주는 이날 홈에서 치러지는 '2020 K3리그' 개막전에서 연승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전주는 이날 공격적인 축구를 펼칠 계획이다.

공격에서는 김근웅과 이동준, 김도훈이 골을 기록하기 위해 상대 골문을 조준하며, 중원에서는 김종석과 이경택, 고강준이 공수 조율에 나선다. 수비에는 임진우과 민지홍, 지병우, 신근식이 상대 공격을 무력화 시킬 계획이며, 골기퍼 조대영은 무실점으로 골문을 지킨다. 특히, 올해 통합 출범하는 K3·4리그는 기존의 내셔널리그, K3리그 및 신생팀 등 모두 29개팀이 참가 한다. K3리그는 16개팀(전주시민축구단, 강릉시청축구단, 경주시민축구단, 경주한수원축구단, 김포시민축구단, 김해시청축구단, 대전한국철도축구단, 목포시청축구단, 부산교통공사축구단, 양주시민축구단, 창원시청축구단, 천안시축구단, 청주FC, 춘천시민축구단, 평택시티즌FC, 화성FC)이, K4리그는 13개 팀(고양시민축구단, 서울노원유나이티드, 서울중랑축구단, 시흥시민축구단, 양평FC, 여주시민축구단, 울산시민축구단, 이천시민축구단, 인천남동구민축구단, 진주시민축구단, 충주시민축구단, 파주시민축구단, 포천시민축구단)이 참가한다.

K3리그는 라운드 로빈 방식(팀당 15경기)과 스플릿 방식(팀당 7경기)을 혼용해 팀당 22경기를 치르며, 챔피언십은 리그 1위부터 4위까지 참가하고 결승전은 홈앤드어웨이로 펼쳐진다. 또 K3리그 하위 15위와 16위는 자동 강등되고, K4리그 1위와 2위는 자동 승격되며, K3리그 14위 팀은 K4리그 승격플레이오프 승리 팀과 승강결정전을 갖는다.

양영철 전주시민축구단 감독은 "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개막이 연기 됐지만, 그동안 선수들과 많은 준비를 했다"면서, "K3리그 통합 첫 홈 개막경기인 만큼 공격적인 축구로 멋진 경기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치대 3호관 문 열었다

옛 수의대 리모델링…임상술기센터 · 실험실 등 들어서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쟁력을 높여줄 치과대학 3호관이 13일 개관했다.

새롭게 문을 연 치과대학 3호관은 익산 특성화캠퍼스로 이전한 옛 수의대 건물을 리모델링해 최근 완공한 것이다.

연면적 3,782.88㎡에 지상 3층 규모인 치과대학 3호관에는 1층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에 대비할 수 있는 '치의학 임상술기센터'와 2층 기초 및 임상실험실, 3층 동물실험센터 등이 들어섰다.

이를 통해 매년 100%의 치과의사시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는 전북대 치대 학생들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동원 총장은 "치과대학 3호관은 앞으로 학생들의 임상술기 능력을 강화시키고, 기초·임상 중개연구 클러스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치의학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관을 계기로 우리 치과대학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대, 전북 콘텐츠코리아랩 창작랩 · 창작넷 운영

창업 촉진… 4억 여원 투입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2020년 전라북도 콘텐츠코리아랩 창작랩·창작넷'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창작랩·창작넷 사업'은 지역 기반 콘텐츠 창작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이트·스토리텔링 교육,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6년째 진행돼고 있으며, 연차별 추진과제와 전략을 바탕으로 단계별 창작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는 '콘텐츠 창작을 넘어 창업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지난 5년 동안 지원됐던 콘텐츠들의 고도화를 이루고 더불어 기존 혹은 신규 창작자가 창업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총 4억 여원 투입할 계획이다.

전주대는 선정된 창작자에게 창작지원금을 제공함과 동시에 콘텐츠 창작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창작랩', 콘텐츠 창작자의 저변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인 '창작넷', 창작 인프라를 공유하고 장비 지원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 등을 통해 지역 기반 콘텐츠 창작자들의 창업을 촉진 시킬 예정이다.

전기흥 창업지원단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콘텐츠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전주대만의 창업 지원 노하우를 활용해 창작자들이 콘텐츠 창작을 넘어 사업화와 창업까지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 관내 42개교 교육환경개선사업 8억 확보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영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전주시와 공동 협력(1:1 대응투자)을 통해 2020년도 제1회 교특회계 추경예산 8억원을 확보, 관내 42개교(초 22개교, 중 14개교, 고 6개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전주교육지원청이 전주시와 2014년도부터 업무협약을 체결해(각 4억원씩 1:1 대응투자) 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 편익시설 확충 등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이다. 지난해 9월부터 관내 초·중·고 61개교에서 신청해 우선순위에 따라 42개교를 선정·지원한다.

/장은성기자